

# Sinopec, CPL 14만톤 증설 완료

최종목표 28만톤으로 자급률 상승 기여 ... DSM 증설은 2007년 마무리

Sinopec 산하 Baling Petrochemical의 CPL 증설이 5월18일 완료됐다.

Hunan의 Yueyang 소재 CPL(Caprolactam) 7만톤 플랜트는 2배 증설돼 14만톤으로 확장됐으며 당초 예상보다 공정을 3개월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Baling은 다시 CPL 생산능력을 2배 증설해 28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07년 증설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CPL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월 7만톤의 CPL을 소비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아 월 4만~4만5000톤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ling의 7만톤 증설로 2007년 수입의존도는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8만톤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입의존도가 2005년 60~70%에서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Baling은 Dongting Nitrogen Plant와 Yingshan Petrochemical Plant의 합병으로 2000년 출범했으며 생산능력은 CPL을 비롯해 암모니아(Ammonia) 33만톤,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 10만톤, 요소(Urea) 60만톤, 합성비료 10만톤, 과산화수소 2만톤, Tire Cord 1만3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DSM Nanjing Chemical이 진행하고 있는 CPL 14만톤 플랜트의 2만톤 증설작업은 2007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6/05/25>